



축사 전기설비 안전관리

- 농장 규모에 맞는 전력 사용
 - 전력 초과 예상 시 즉시 전력사용량 변경
- 환풍기, 보온등, 온풍기 등 전기기구와 전선의 관리 철저
- 분전반 내부 및 노출전선, 전기기계·기구의 먼지제거 등 청결유지
 - 전선, 전기기구 주변의 먼지나 거미줄 등 주기적으로 청소
- 축사 내외부의 전선 피복상태 등 점검
 - 모든 전선의 접속부는 견고히 접속
 - 노후전선은 즉시 교체하고 방수용 전선을 사용하여 습기에 대비
 - 사용환경이 가혹한 곳에서는 내열성, 내후성 있는 전선으로 교체
 - 쥐 등에 의해 손상 받을 우려가 있는 전선은 배관공사 실시
- 정기적인 안전점검으로 안전한 전기사용 생활화
 - 누전차단기는 월 1회 이상 작동시험
 - 노후화된 차단기는 즉시 교체
 - 파손된 플러그와 노후화 된 콘센트 등 노후 전기시설 즉시 교체
 - 전열기구 관리를 철저히 하고 주변에 인화성 물질 제거
- 문어발식 배선금지
- 사용하지 않는 전기기구는 플러그를 뽑아두고 습하지 않도록 관리
- 감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전기기계·기구에는 접지시설 확인 및 시공
- 전기설비 점검과 개보수는 전문업체에 의뢰
- 축사 내 소화기 비치 및 소방차 진입로 확보
- 축사 화재 등 재해대비 가축재해보험 가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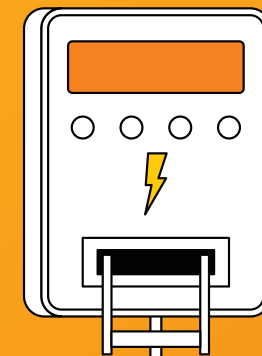


낙뢰 등의 피해 예방

- 낙뢰 우려가 많은 지역은 피뢰침 설치
- 번개가 치는 동안 전선, 전기기기를 이용한 작업이나 수리 금지
- 비바람 등으로 전선이 끊어지거나 하는 경우 즉시 전기고장 신고(국번없이 123)

전기안전 화재예방

축사 전기설비 안전관리와 전기화재 예방!



정기적인 안전점검 및 안전한 전기 사용으로
축사 화재를 예방합시다





전기화재 발생 주요 원인 및 예방법

- **합선에 의한 화재** : 전기기기나 회로의 절연체가 전기적 또는 기계적 원인으로 손상되어 합선에 의하여 발화

예방

- 전선 고정에 못, 스테플 등 사용 금지
- 전열기에 온도조절장치 부착
- 전기시설 노후전선 교체
- 단자와 연결부분 접속부 수시점검 필요 * 풀린 나사 재조임 실시

- **과전류에 의한 화재** : 전기 소비량이 많은 전기기구나 전기장치를 동시에 사용하여 과부하로 인해 부하전류가 증가하여 과열, 발열

예방

- 문어발식 배선 금지
- 많은 전류가 흐르는 기구를 동시에 사용 금지
- 규격 이상 전선을 사용하고 반드시 정격퓨즈를 사용

- **누전에 의한 화재** : 전기기구 파손, 전선피복 손상 등으로 누설전류가 발생되어 열의 축적으로 발화

예방

- 누전차단기 설치
- 파손된 기기는 수리 또는 교환
- 수시로 절연상태(누전여부) 확인

- **스파크에 의한 화재** : 스파크는 전기회로를 개폐할 때 또는 합선 될 때 전기기구 접촉부분의 불량 등에 의해 발생

예방

- 스위치에 보호용 캡 사용
- 스위치 내부나 주위에 분진 등 퇴적물 수시로 제거
- 각종 개폐기 조작부는 가연성 물질이 체류 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

- **전기기기 취급 부주의에 의한 화재** : 이상이 없는 전기기기라도 취급을 잘못하면 화재를 일으키게 되며 무리하게 사용해도 화재가 발생할 수 있음.
예) 사용중인 전열기기 위에 가연성 물질이 떨어져 발화

예방

- 사용하지 않는 전열기구는 반드시 플러그를 뽑아 둘 것
- 전열기 등은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하고 주변의 인화성 물질 제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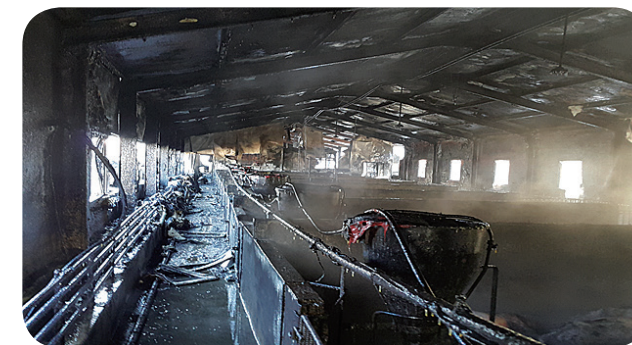


전기화재 발생사례

- 축사 화재 전기적 요인 45%, 부주의 18%, 기계적요인 등 37% (최근 5년간, 충남)
- 2021년 11월 충남 홍성군 돈사 전기적 요인 추정 화재 발생, 돼지 1,095두 폐사 및 축사 3개동 소실
- 2022년 5월 전남 영광군 축사 전기 누전 추정 화재 발생, 돼지 18,000두 폐사, 산림 2.5ha 피해



환풍기 과열에 의한 화재



전기 절연 불량에 의한 화재



화재로 소실된 축사 관리

- 축사 일부가 소실된 경우, 불에 탄 자재들을 치우고 축사가 무너질 우려가 있는 곳은 임시로 지지대 등을 설치하고 빠른 시일 내에 복구
- 파손된 축사의 전기시설을 점검하여 누전이나 합선, 감전에 의한 2차 피해를 최소화 하고, 사료급이 및 분뇨처리시설 등을 수리
- 축사가 전부 소실된 경우에는 가축을 안전한 곳으로 임시 이동시켜 관리하고 출하시기에 임박한 가축은 조기출하



화재 발생으로 놀란 가축 관리

- 빠른시간 내에 축사 내외를 정리 정돈하여 사육환경 변화를 최소화
- 깨끗한 물을 급여하고 사료는 먹는양을 보아가며 남기지 않도록 급여
- 스트레스를 받은 가축은 체력 회복을 위해 부드러운 깔짚을 깔아주고 양질의 사료를 소량씩 자주 급여
- 어린 가축은 일교차가 심한 시기에는 호흡기 질병에 걸리기 쉬우므로 보온에 유의
- 화재 진압 과정에서 물에 젖은 사료는 급여하지 않도록 하고 조사료는 햇볕에 내어놓아 물기를 말린 후에 급여